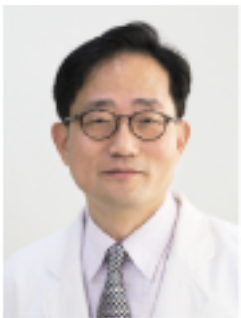


동국대학교일산병원 News Letter

경기북부권 최초 뇌전증 환자 수술 시행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최근 경기 북부권 최초로 뇌전증 환자에 대한 수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했다. 뇌전증은 주로 약물로 치료를 하지만 약물로도 조절이 되지 않는 난치성 뇌전증 환자에 대한 수술적 치료도 오래전부터 시행되어 왔다. 뇌전증의 수술적 치료는 주로 규모가 큰 국내 몇 개의 상급종합병원에서만 진행되고 있으며, 수술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다양한 검사와 발작 시 뇌파를 기록하고 환자를 관찰할 수 있는 시설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신경과 김광기 교수와 신경외과 고은정 교수는 우측 측두엽 뇌전증 및 측두엽 종양이 의심되는 환자 수술 전 검사 결과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전측두엽 및 편도 해마 절제술과 종양 제거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했다.



신경과
김 광 기 교수



신경외과
고 은 정 교수

2017년 감염관리 및 감염재난 훈련 실시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감염예방을 위한 ‘2017년 감염관리주간행사 및 감염재난’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감염관리 주간을 맞아 2017년 ‘함께해요, 손 위생 함께해요, 감염관리’를 주제로 직원 및 환자, 보호자 등 병원 내원객들에게 감염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감염관리에 대한 인식을 정착시키고자 시행됐다. 또한, 감염관리에방을 위한 행사로 1층 로비에서 내원객을 대상으로 형광투시 체험 이벤트와 손 오염도 측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올바른 손 위생에 대해 알리고 참가자들에게는 황사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증정했다. 이어, 감염재난 상황을 대비해 특수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보호구 착·탈의 훈련을 통해 올바른 착·탈의 방법과 위기상황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훈련도 함께 진행했다. 한편, 박성연 감염관리실장은 환자안전 문화 조성과 감염관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신종 감염 병에 대한 교육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감염관리 사진공모전을 통해 감염관리 우수부서와 손 위생 우수 직원을 시상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예약은 약속입니다.’ 예약 부도 stop(No-show) 캠페인 동참

원무팀과 영상의학과는 외래진료 및 검사 예약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예약은 약속입니다’를 홍보하기 위해 2017년 happy hospital 캠페인과 연계하여 내원객을 대상으로 예약 부도 stop(No-show) 캠페인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에서 약 500여 명의 내원객이 예약 부도를 줄이는데 참여의사를 밝혔고, 이중 전화번호가 변경된 분은 연락처를 바꾸어 달라고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보이기도 했다. 이번 활동은 병원뿐 만아니라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곳에서의 예약문화가 올바르게 정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간호부, 함께 만드는 행복한 에피소드 ‘태어나줘서 고마워’ 생일축하 이벤트

간호부는 지난 9월 5일 간호사들의 생일을 기념해주기 위한 이벤트로 ‘태어나줘서 고마워’를 실시하며 행복한 간호문화를 만들어 가는 데 앞장서고 있다. 생일이벤트는 간호부장과 간호팀장이 생일을 맞이한 간호사의 해당 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미리 준비한 생일 축하 쿠키를 선물하며, 일 년 중 가장 특별한 날 소중한 사람들과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길 바라는 마음을 전하고자 시작됐다. 간호사들을 위한 생일 이벤트는 9월 1일부터 다음해 8월 31일까지 1년간 간호부 소속 모든 간호사를 찾아가 축하해줄 예정이다.



2017 Happy Hospital ‘병동 공감 · 참여 캠페인’ 우수부서 시상

지난 9월 14일 병동간호팀 91병동이 ‘병동 공감 · 참여 캠페인’ 활동에서 우수부서로 선정됐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8월 한 달간 진행된 ‘2017 Happy Hospital 캠페인’ 활동의 일환으로 올바른 병실 문화 만들기과 환자와의 공감과 참여를 목적으로 진행된 캠페인 활동이다. 이번에 우수상을 수상한 91병동 간호사는 “환자와 간호사가 함께 참여하여 엽서를 통해 서로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기회가 되어 좋았고, 병동에 볼거리가 많아지고 따뜻한 분위기가 느껴져 좋았다.”고 소감을 말했다.



2017년 하반기 친절 교직원 시상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2017년 하반기 고객 만족을 실천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친절 교직원 시상식을 했다. 친절 우수 교원으로는 안과 오종현 교수가 수상했으며, 정형외과 전공의 김상우, 서지혜, 박재현, 박송이 간호사와 외과계 중환자실 이송반 김현우 직원이 각각 친절직원으로 선발됐다.

